

제명통지서

2024년 5월 10일

손민호 귀하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심의 절차를 갖고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통지합니다.

심사 과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는 2024년 3월 21일에 개최된 제 65차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및 선출직 이사, 전직 이사 등으로부터 상정된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 요청을 토의한 결과, 협의회 수호 및 낙스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외 8인)를 구성했음.

특별조사위원회는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4월 27일과 5월 5일 회의를 갖고 귀하의 헌장 위반 및 임원 협박행위, 유관기관에 거짓정보 제공 등 업무방해와 그에 따른 심각한 낙스 신뢰도 및 명예 실추 등 징계 항목을 이사회에 상정.

징계 결정

2024년 5월 9일 제 66차 이사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정안을 심의하고 제명을 의결.

징계 사유

반낙스측(당시 자칭 총회장권한대행 윤혜성)은 불법적으로 차기(22대) 총회장과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는 정족수마저 채우지 못해 자체 의결기구로서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음. 더구나 기대했던 총회장 후보마저 사퇴해서 아무 의미 없는 총회가 되었음에도 반낙스측은 손민호 씨를 부회장으로 선출. 법적효력이 없는 당선자를 내세움. 선출당시 손민호 씨는 후보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정관은 교장 교감으로 제한).

그 직후 손민호 씨는 자신이 22 대 총회장권한대행이라고 주장하며 협의회를 혼란에 빠뜨림. 권한대행은 현직에 있던 총회장이 유고되는 돌발상황에서 차기 총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비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여받는 직책인데, 반낙스 측은 총회장도 없이 22 대를 출범시켰고, 존재하지 않던 총회장을 대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또한 총회장에게만 부여된 임원 선임 권한을 부회장이 총회장 행세를 하며 불법적으로 집행부를 구성한 것도 헌장 위반. 낙스 직인과 로고도 권한없이 사용하는 등 불법적 처사로 낙스의 신뢰도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킴. 아울러 추성희 총회장이 이끄는 합법적 집행부 임원들에게 수시로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 임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를 방해함. 이외에도 철저히 보안유지되어야 할 회원교 정보를 아무 제약없이 도용함. 대외적으로는 협의회와 유관협력기관에 자신이 총회장 권한대행이라고 행세하며 정상적 낙스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정보를 퍼뜨림.

[별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별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1. 헌장 불이행에 따른 불법 행위

- 1) 회원의 기본권 위반- 헌장 2 장 제 8 조 1 항 위반 행위
- 2) 헌장 2 장 제 9 조 2 항 위반 행위
- 3) 총회장 없는 자칭 22 대 출범(임원도 없는 부회장 1 인 선출)이라는 낙스 회원교 기망행위
 - 증거자료: 반낙스 제 64 차 이사회 회의록
- 4) 총회장을 선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칭 총회장권한대행이라며 직권 도용.
- 5) 2024 년 1 월 19 일 당시 학교 대표자가 아닌 무자격자
 - 증거자료: 뉴라이프교회 2023 년 12 월 31 일, 2024 년 1 월 7 일자 주보

2. 전체 회원교 학교와 교사 간의 혼란 조성

- 1) 낙스 소유권(직인/로고) 도용과 공문서 위조로 낙스 신뢰도를 현저히 추락시키고 회원교와 교사 및 학생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준 행위
 - 증거자료 : 2024 년 3 월 9, 13 일 , 4 월 23 일 이메일
- 2) 회원교의 주소와 이메일 및 대표자 정보를 거침없이 불법 사용한 행위
 - 증거자료: 2023 년 12 월 23 일, 2024 년 1 월 31 일, 3 월 1 일, 9 일, 13 일, 4 월 23 일자 이메일
- 3) 2023 년 총회(41 회 샌프란시스코 학술대회)에서 가결된 전반적 협의회 사업과 42 회 필라델피아 학술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행위
 - 증거자료: 2023 년 12 월 23 일, 2024 년 1 월 31 일, 3 월 1 일, 9 일, 13 일, 4 월 23 일자 이메일
- 4) 법적 싸움을 시작한 행위
 - 증거자료: 2024 년 3 월 18 일자 총회장이 우편 메일로 받은 서류
 - 증거자료: 2024 년 2 월 21 일자 이메일

3. 낙스 집행부 업무방해 및 협박성 이메일 배포

- 1) 합법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집행부(총회장 및 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협박 이메일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업무를 방해한 행위

- 증거자료: 2024 년 3 월 16 일자 이메일

4.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대내외적 신뢰도 실추

- 증거자료: 2024 년 4 월 11 일자 이메일

- 1) 대외 협력기관(정부기관, 교육 및 언론)에 불법 허위 정보를 보내 분규 단체라는 오명을 얻게한 행위

• 증거자료: 2024 년 3 월 15 일 추성희 총회장, 권예순 부회장이 김구재단 방문 시 재단의 김혜연 팀장이 ' 손민호씨가 재단에 이메일을 보내서 추성희 집행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여 재단이 집행부와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사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결과를 통보하겠다.' 고 설명.

- 2) 교육부, 재외동포청, 국립국어원등 정부 기관과의 관계에 허위 정보 유출한 행위
- 3) 국제한국어교육재단, 독립기념관, 독도재단, 김구재단, 종이재단, 반크 등 유관 단체와의 관계에 허위정보 유출로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

- 증거자료: 2024 년 2 월 5 일, 4 월 11 일자 이메일

-끝-